

# 형태 이론의 사적 연구

김 수 곤

(전북대학교)

Kim, Soo-Gon(1993). **Historical study on Morphology.** *Linguistics*, Vol 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pproaches on morphology historically. In pre-generative grammar the main concern of morphology as the study of forms of words was on the classification(in traditional grammar) and the analysis of words(in structural grammar). In generative grammar, on the other hand, the focus has been on the description of word formation process as well as on the analysis of word structure. In early generative grammar, morphology was regarded as part of syntax and phonology, where the approaches on the word formation were transformational. In later generative grammar since 1970 morphology has been treated as an independent component with its own set of principles. However, a general and universal theory is not possible because of the variety of views over the scope of morphology and of the different models appropriate to different languages.

## 1. 서론

이 논문은 생성문법 이전과 생성문법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형태론에 관한 연구 내용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문법 안에서 형태론의

---

\* 이 논문은 1989년도 교육부 일반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2 김 수 곤

언어학적 위치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형태론(Morphology)은 단어라고 하는 단위가 인정되는 언어에서 단어에 대한 내적 구조 분석 및 단어를 구성하는 구성소와 이들의 결합에 대한 연구를 하는 언어학의 하위 부문으로 정의된다. 형태론에 관한 연구는 단어의 내적 구조에 대한 분석과 단어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형태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형태론에 관한 연구도 최근 생성형태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sup> 형태론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이유는 형태론의 기본 단위인 단어가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이다.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휘소(lexeme)와 단어(word)를 총칭하는 의미로 쓰여지지만, 실제로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어는 음운론적 단어(phonological word), 통사론적 단어(syntactic word), 그리고 의미론적 단어(semantic word)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단어를 정의하는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있고, 의미론적, 통사론적, 음운론적 기준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sup>2</sup>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생성문법 이전의 문법에서 형태론에 관한 연구를, 3장에서는 생성문법 이후의 문법에서 형태론에 관한 연구를 분석 검토한 후, 4장에서는 생성형태론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국어의 접미형태소 '-이'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을 함으로써 형태론이 문법 안에서 갖는 언어학적 위치를 밝혀보고자 한다.

## 2. 생성문법이전의 형태론

### 2.1. 전통문법의 형태론

전통문법은 Saussure 이전의 공시적 및 통시적 문법을 가리킨다. 전통문법의 형태론은 단어의 형태적인 변화만을 다루는 어형론(accidence; etymology)을 가리키는데, 17세기까지는 어형론과 통사론에 관계되는 문제를 구별없이 다루었다. Jespersen(1924)은 전통문법의 유형에 속하지만 형태론과 통사론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조주의에서 생성문법에 이르는 새로운 문법관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통문법에 입각한 국어 형태론 연구는 최현배(1937), 이회승(1955) 등이 있다.<sup>3</sup>

전통문법의 형태론은 품사론 위주의 연구로 품사 체계를 세우는 데 중점

을 두었다. 단어에 관한 연구는 형태의 결합, 의미의 변동 등에 따라 간단하게 분류되어 단어는 단일어와 합성어로 분류되고, 합성어는 다시 복합어, 첩어, 파생어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파생과 굴절에 대한 연구 영역이 명확하지 못하고, 파생과 굴절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태론과 통사론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형태어휘적인 면과 형태통사적인 면이 뒤섞여 다루어졌다. 그 예로, (1)에서 '-이'는

- (1) a. 애꾸눈이, 절름발이, 육손이, 육발이, 곰배팔이
- b. 쇠돌이, 이쁜이, 순년이, 복동이, 수남이
- c. 나날이, 다달이, 집집이, 곳곳이, 샅샅이, 날날이
- d. 같이, 놀이, 먹이, 벌이
- e. i) 같이, 적이, 많이, 길이, 높이, 깊이, 슬피
- ii) 심히, 천천히, 자연히, 부지런히, 킁킁히
- iii) 새로이, 외로이, 괴로이, 수고로이

각기 다른 기준에서 접미사로 분류되었다(최현배 1937). (1a)는 의미론적 기준에서(최현배 1937: 672), (1b)는 음운론적 기준에서(최현배 1937: 673), (1c)는 형태통사적 기준에서(최현배 1937: 675), (1d)는 형태통사적 기준에서(최현배 1937: 678), (1e)는 형태음운 및 형태통사적 기준에서(최현배 1937: 680) 접미사로 분류되었다.

## 2.2. 구조문법의 형태론

구조문법의 형태론에서는 형태소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형태소는 어휘부에 저장된다고 보았다.<sup>4</sup> 어간과 어근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종류, 형태소 배열순서와 형태소들 간의 관계 및 형태소들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 등을 연구했다.<sup>5</sup> 그러나 구조문법의 형태론은 어형성(word formation)보다는 단어분석(word analysis)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휘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구조문법의 방법론에 의하면 문장 (2)는

- (2) 새에게 먹이를 먹이다.



b.	시골	{sikol}	/sikol/	[sikol]
	옷이	{os}{i}	/osi/	[osi]
	맛이	{mas}{i}	/masi/	[masi]
(7)	형태음소	음소	음성	
a.	{t} →	/c/		
b.		/s/ →	[ʒ]	

구조문법에서는 (7)에 대한 규칙을 이형태 규칙 (8a)와 음운규칙 (8b)의 두 개로 구분한다.

- (8) a. {t} → /c/ / \_\_\_\_\_[i]  
 b. /s/ → [ʒ] / \_\_\_\_\_[i]

구조문법의 방법론에 의한 분석은 형태음운론적 현상과 순수 음운론적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지만, 구개음화라는 한 가지 음운 현상을 한 번은 이형태규칙으로 한 번은 음운규칙으로 기술함으로써 구개음화 규칙에 대한 일반성을 포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sup>8</sup>

구조문법에서는 음운론이 기술된 다음 형태론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통사론을 기술하는 순서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나 형태론과 통사론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다.<sup>9</sup> Bloomfield(1933)으로 시작된 미국 구조문법에서는 자유 형태(free form)를 몇 개 갖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자유 형태를 하나 가질 때 형태론, 둘 이상 가질 때 통사론으로 분류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복합어형성은 통사론의 영역에 속한다.

구조문법의 방법론에 의한 국어 형태론 연구는 기술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단어구조에서의 분포를 기준으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는 연구가 이루어졌고(허용 1964), 파생과 굴절을 구분하고 접미사 목록이 작성되었으며(김계곤 1968, 1969; 고영근 1974), Gleason, Hockett, Nida이론을 토대로 국어의 파생과 합성에 대한 연구가 경쟁하게 이루어져, 복합어와 파생어의 구별이 명확해졌다. 구성요소가 모두 어간이나 어근인 단어는 복합어로, 그렇지 않은 단어는 파생어로 분류되었다(이익섭 1965).<sup>10</sup>

구조문법에서 형태론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모형이 발달되었다<sup>11</sup> 항목 배열(Item and Arrangement) 방식은 구성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기술하면 언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언어 형식의 구성 요소와 배열

## 6 김 수 곤

방법을 중심으로 요소간의 분포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는 방식이다. 항목 과정(Item and Process) 방식은 어떤 형태를 기본형으로 정하고 이 기본형에 조작을 가하여 새로운 형을 생성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방식인데, 기본형은 역사적 발전 과정과는 관계없이 체계를 간결하게 기술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한다. 단어 계열(Word and Paradigm) 방식은 단어는 확고한 문법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단어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다루자는 관점에서 단어를 통사적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파생과 굴절접사는 어형변화표(paradigm)로 다룬다. '먹다'가 '먹+다'로 구성되어 있고, '食+敍述'의 의미를 갖는다고 기술하는 것은 항목 배열 방식에 의한 것이고, '먹다'가 형태소 '먹-'에 접미사 '-다'가 부가되는 과정에 의해 도출되었다고 기술하는 것은 항목 과정 방식이며, '먹다'라는 단어에는 '먹게, 먹고, 먹자,....'와 같은 어형변화표가 있다고 기술하는 것은 단어 계열 방식이다. 항목 배열 방식과 항목 과정 방식은 형태소를 단위로 하지만 단어 계열 방식은 단어를 단위로 기술하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항목 배열 방식은 형태소를 항목으로 다루지만, 항목 과정 방식은 형태소를 규칙으로 다룬다는 점이 다르다.

항목 배열 방식, 항목 과정 방식, 그리고 단어 계열 방식은 생성형태론에서 응용 발전되었다. 국어의 '좁-'에 대한 단어 형성 과정을 Halle(1973)의 이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어휘목록에 저장된 형태소들 '좁-, -이, -게, -고,....'에 대해 단어형성규칙 '좁+이→좁이, 좁+게→좁게, 좁+고→좁고,....'이 적용된다. 다음 여과장치에 의해 '\*좁이'는 여과되고 '좁-'에서 형성된 단어들 '좁게, 좁고,....'이 어형변화표로 사전에 수록된다. 그리고 단어 '좁다'는 어형변화표와 함께 어휘 삽입 규칙에 의해 심층구조에 삽입된다. 삽입된 단어 '좁다'의 어형변화표에서 적절하지 않은 굴절형은 음운규칙 및 재조정규칙의 적용으로 다듬어진다. 여기에서 단어 '좁다'가 어형변화표와 더불어 사전에 수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단어 계열 방식을 응용한 것이고, 단어 형성의 기본단위를 형태소로 보고 형태소 배열 순서에 따라 형성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항목 배열 방식을 응용한 것이고, 어휘 삽입 후에 적절하지 않은 굴절형들을 규칙을 적용하여 다듬는 것은 항목 과정 방식을 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3. 생성문법의 형태론

#### 3.1. 초기생성문법의 형태론

생성문법 초기에는 변형문법 이론에 바탕을 둔 통사론의 발달과 더불어 형태소와 경계(boundary)로 연속된 구조를 생성해서 음운부에 입력시키는 역할도 통사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된 문법의 하위부문으로서의 어휘부나 형태론은 인정되지 않았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형태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형성에 대한 기술도 통사론-재조정 규칙-음운론의 과정에 의해 다루어졌다. Chomsky(1957)에서 어휘목록은 형식소의 일람표에 불과하였고, 파생, 합성, 굴절을 다루는 어형성에 관한 연구는 무시되었거나 통사론에서 변형규칙으로 다루는 무리한 시도가 있었다.<sup>12</sup> 이러한 입장은 Chomsky (1965)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표준이론(standard theory)으로 정립되었다.<sup>13</sup> 표준이론의 음운부를 이루는 Chomsky and Halle (1968)의 SPE(Sound Pattern of English)에서는 이형태 변이를 음운규칙으로 다루었는데 음소(phoneme)로써 형태소(morpheme)을 이루는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sup>14</sup> Lees(1960)는 어휘목록에는 단일어만 수록되어 있고 파생어, 굴절어 및 복합어를 포함하는 모든 어형성이 심층구조에서 통사적 변형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sup>15</sup>

생성문법의 초기에는 형태통사적 측면은 통사론에서 형태음운론적 측면은 음운론에서 다루어 변형론적 방법으로 다루었다. 생성문법의 초기 방법론에 따르면, '먹이'는 통사론에서 형식소 '먹'에 파생접사 '-이'가 추가되어 파생적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기술되고, '먹고'도 통사론에서 형식소 '먹'에 굴절 표지 '-고'가 추가되어 굴절적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기술된다.<sup>16</sup>

생성문법 초기의 방법론은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명시적인 기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명시성이 없이 직관에 의존하는 전통문법의 방법론과 다르고, 단순히 분류학적인 구조적 분석과 기술을 하는 구조주의 방법론과 다르다. 그러나 어형성에 대한 변형론적 접근방법은 전체조작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복합어 및 파생어가 갖는 의미의 특이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sup>17</sup>

생성문법 초기의 이론은 독립된 형태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소를 단위로 한 배열상의 제약을 다룰 필요가 있었다. 형태소의 구조를 지

## 8 김 수 곤

배하는 규칙성은 형태소 구조규칙(Morpheme Structure Rule: Halle 1959), 형태소 구조조건 (morpheme structur conditions: Stanley 1967), 어휘 잉여규칙(lexical redundancy rules: Chomsky and Halle 1968)에 의해 포착되었는데, 이 규칙들은 재조정규칙의 성격을 띠며, 음운규칙보다 앞서 적용된다. 생성음운론의 기저음운은 사실상 형태론적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음소에 해당하는데 형태음소에 대한 치밀한 기술을 해낼 수 있었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형태음소에 대한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음운론적 기술과 형태론적 기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sup>18</sup> 생성문법의 초기 이론에서는 자료 (5)와 자료 (9)의

- (9) a. 마디, 어디, 부디, 견디-, 디디-
- b. 꽃잎, 발이랑,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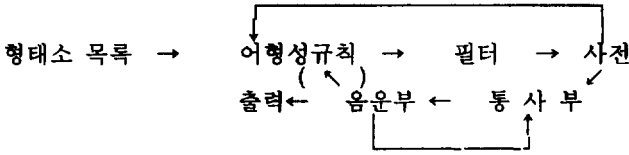
형태론적 차이를 기술할 수 없었기 때문에, (9)에 제시된 단어들에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저형을 추상화하여 설정한다거나, 규칙의 적용순서를 조작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3.2. 생성문법의 발달과 생성형태론

Chomsky(1970) 이후의 생성문법의 흐름은 어형성에 대하여 어휘론적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Chomsky(1970)는 영어의 동명사류(gerundive nominal)와 파생명사류를 대비하면서 이 둘은 통사적 생산성, 의미 합성, 내부 구조 등 많은 체계적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통사론에서 변형규칙이 갖는 힘을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파생명사류는 동명사류와는 달리 어휘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9</sup> '단어내부구조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통사규칙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Chomsky의 어휘론 가설(Lexicalist Hypothesis)은 Halle(1973), Siegel(1974), Jackendoff(1975), Aronoff(1976), Lapointe(1980) 등에 의해 응용 발전되어 통사론에서 독립된 어휘형태론(lexicalist morphology)의 발달을 가져왔다.<sup>20</sup>

Halle(1973)는 어휘론의 테두리 안에서 처음으로 형태부(morphological component)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생성형태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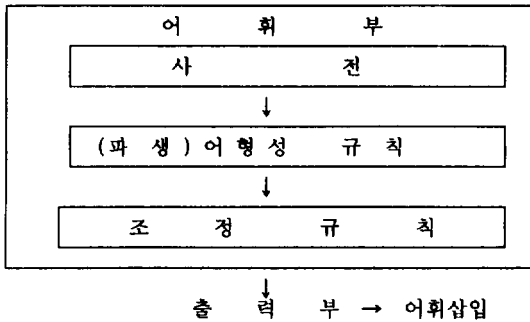
Halle(1973)에서 제안한 모델에서 형태부는 형태소 목록, 어형성 규칙, 필터 및 사전으로 구성된다. Halle는 굴절을 포함한 모든 어형성은 전적으로 어휘부에서 어형성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강어휘론의 입장에서 형태소를 어기로 하여 파생어형성과 굴절어형성과정을 동일시하여 다루었는데, 복합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어형성 규칙을 어휘목록에 저장된 형태소에 적용되는 규칙과 사전에 수록된 단어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구분하였는데, 어형성 규칙은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기능 뿐아니라 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분석하는 기능도 있다고 보았다. 어형성 규칙의 적용을 받아 생성된 단어들은 필터에 들어가 단어의 실재성, 형태소 배열의 적합성 및 개별 단어의 특이성 측면에서 여과된 후 적절한 단어만 사전에 수록된다. 사전에 수록되는 단어들은 굴절 어형변화표(inflexional paradigm)와 더불어 저장된다. 사전에 수록된 단어들은 어휘 삽입 규칙에 의해 통사부에 입력되고, 문의 전체구조에 적절하지 않은 굴절형들은 규칙의 적용을 받아 다듬어진다.

Halle(1973)의 이론은 최근 형태론 연구에 대해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Halle의 형태소어기가설, 어형성 규칙이 도출의 뒷부분인 사전에 담겨진 정보를 이용하는 등 그 힘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가능하면서 실재하지 않는 단어의 수를 제한할 원칙이 없으므로 필터가 유한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사전과 형태소 목록은 체계에 잉여적 요소를 남긴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sup>22</sup>

이에 대해 Aronoff(1976)는 단어어기가설을 제안했는데, Aronoff의 단어어기가설에 의하면 어형성의 기본단위는 단어로서 어형성 규칙의 입력부와 출력부는 모두 단어로서 대어휘범주(major lexical category)인 명사, 동사, 형용사이어야 한다.<sup>23</sup> Aronoff이론에서 단어는 Halle(1973)가 생각하듯 형태소의 단순한 연쇄가 아니라 '의미를 가진 최소단위'로 정의된다.<sup>24</sup> Aronoff에 의하면 형태소는 음운적 실체(phonological substance)를 가지나 의미 단위는 아니며, 약어휘론 가설위에서 굴절은 통사론에서 처리하기 때

## 10 김 수 곤

문에 PLURAL, PAST 등의 단위는 형태소가 아닌 단지 통사론적 표지(syntactic marker)로 간주된다.<sup>25</sup> 단어를 어기로 삼고 접사가 어형성 규칙(word formation rules)에 의해 첨가되는데 각 어형성 규칙은 별개의 과정이므로 한 언어에는 접사의 수효만큼의 어형성 규칙이 있다고 가정한다. 어형성 규칙의 출력부에는 이형태규칙(Allomorphy rule)과 절단규칙(Truncation rule)과 같은 재조정 규칙(readjustment rules)이 적용된다.<sup>26</sup> Aronoff의 형태론 모델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sup>27</sup>



Aronoff(1976)의 이론은 체계적인 형태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단어어기가설이 언어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그리고 단어어기가설에 관련된 재조정규칙(절단규칙), 단일어기가설(unitary base hypothesis: Aronoff 1976: 48), 저지(blocking)에 관한 설명, 1접사 1규칙 가설(one affix, one rule hypothesis)이 문제점으로 논의되었다.<sup>28</sup>

생성형태론의 방법론에 입각한 국어연구는 송철의(1977)가 Aronoff이론을 토대로 국어의 파생어형성을 다룬 것을 시작으로, 심재기(1982), 이병근(1986), 하치근(1993) 등이 있다.<sup>29</sup>

### 4. 생성형태론의 연구방향

#### 4.1. 형태소어기가설과 단어어기가설

어휘부가 통사론과는 별도의 부문으로 형태론까지 어휘부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어휘론적 접근방법이 발달됨에 따라, 어휘부는 어휘를 설정하는

부문으로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복잡한 내부구조를 갖는 것으로 다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어휘부의 단위는 단어와 형태소로 이루어지는데, 어형성의 단위를 단어로 보느냐 아니면 형태소로 보느냐에 따라 단어어기가설과 형태소어기가설로 구분된다. 이 두 가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접사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다. 단어어기가설은 접사를 어휘항목이 아닌 규칙으로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형태소어기가설은 접사를 어휘항목으로 다루자는 입장이다.<sup>30</sup> 형태소어기가설은 Halle(1973), Siegel(1974), Allen(1978) Hoekstra et al(1980), Lieber(1980), Williams(1981), Kiparsky(1982a, 1982b, 1982c), Selkirk(1982), Di Sciullo and Williams (1987) 등에 의해 발달되었고, 단어어기가설은 Jackendoff(1975), Aronoff (1976), Allen (1978), Scalise(1984) 등에 의해 발달되었다.<sup>31</sup>

국어 자료 (10)에서 접미형태소 '-이'와 '-음'은 형용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명사로 바꾼다.

(10) a. 길다	길이	b. 짧다	*짧이	짧음
	높다	낮다	*낮이	낮음
	넓다	좁다	*좁이	좁음
	깊다	얕다	*얕이	얕음

Halle(1973)의 모델에 의하면, 형태소 목록에 '길-, 높-, 넓-, 깊-, 짧-, 낮-, 좁-, 얕-'과 같은 어간과 더불어 접사 '-이, -음, -다'가 수록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형태소들은 어형성규칙의 적용을 받아 '길다, 길이, 짧다, 짧이, 짧음....'과 같은 단어가 형성되는데, 필터에 의해 '\*짧이'와 같은 단어는 제거되고, '길다, 길이, 짧다, 짧음....'과 같은 단어만 사전에 수록된다.<sup>32</sup>

Aronoff(1976)의 이론에 따르면, 어휘목록에 '길다, 높다, 넓다, 깊다, 짧다, ....'와 같은 단어들이 수록되어 있고, 어형성 규칙에 의해 접사 '-이'가 첨가된다. (10b)에서 [[X]-이]형태의 단어가 없는 것은 [[X]-음]형태의 파생어가 존재하면 접사 '-이' 첨가 규칙은 저지(blocking)되기 때문이다.<sup>33</sup>

자료 (10)에 대한 분석만을 고려한다면, 형태소어기가설에 의한 방법과 단어어기가설에 대한 방법은 둘 다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접미형태소 '-이'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기능 뿐아니라,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

## 12 김 수 곤

는 기능도 있다. (10a)의 '깊이, 높이, 깊이'는 부사의 '깊이, 높이, 깊이'와 표면형태상 동일하다. 형태소어기가설에 의하면, 형태소 목록에 명사형 접미형태소 '-이'와 부사형 접미형태소 '이'가 수록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어형성 규칙에 의해  $[[\text{깊이}]_A [\text{이}]_N]_N$ 와  $[[\text{깊이}]_A [\text{이}]_{Adv}]_{Adv}$  두 개의 단어를 형성하여 사전에 수록할 것이다. 반면에 단어어기가설에 의하면 접미형태소 '-이'는 규칙으로 다루어지므로, 접사의 기능에 따라  $[[\text{_____}]_A \text{이}]_N$ 와  $[[\text{_____}]_A \text{이}]_{Adv}$  두 개의 어형성규칙이 필요할 뿐아니라, 접사 '-이'가 범주를 바꿀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없고 접사 '-이'에 대한 일반성을 포착할 수도 없다.<sup>34</sup>

### 4.2. 강어휘론 가설과 약어휘론 가설

생성형태론의 발달과 더불어 어휘론 가설은 굴절로 확대되어 어휘형태론은 굴절을 형태론에 포함시키자는 강어휘론가설을 옹호하는 입장(Halle 1973, Jackendoff 1975, Lapointe 1980, McCarthy 1979, Lieber 1980, Williams 1981, Selkirk 1982, Kiparsky 1982a, 1982b, 1982c 등)과 굴절을 형태론에서 제외시키자는 약어휘론가설을 옹호하는 입장(Chomsky 1970, Siegel 1974, Aronoff 1976, Allen 1978, Anderson 1982 등)으로 구분된다. 약어휘론가설을 옹호하는 입장은 굴절을 통사론적 표지로(syntactic marker)로 다루자는 견해(Chomsky 1970, Aronoff 1976, Jackendoff 1975, Beard 1988 등)와 음운론에서 다루자는 견해(Anderson 1982)로 구분되고, 강어휘론가설을 옹호하는 입장도 굴절과 파생을 동일한 원리로 다루자는 견해(Halle 1973, Lieber 1980, Williams 1981 등)와 굴절과 파생을 다른 유형으로 다루자는 견해(Selkirk 1982, Strauss 1982, Scalise 1984 등)로 구분된다.<sup>35</sup> 결과적으로 어휘론자들은 파생형태론을 통사구조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격, 수 인칭, 시제, 상, 일치 등과 같은 문법관계를 다루는 굴절형태론에 대해서는 형태론적 접근방법, 통사론적 접근방법, 음운론적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파생과 굴절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sup>36</sup> 첫째, 파생은 단어의 통사범주를 변화시키지만, 굴절은 단어의 통사범주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둘째, 형태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굴절은 파생에 대해 항상 주변적이다. 셋째, 파생어가 새로이 창조되어 나오는 것에 비해, 굴절

형은 새로이 만드는 힘이 없다. 네째, 굴절형의 의미기능은 규칙적이거나, 파생어의 의미는 규칙적이지 않고 하나 하나 어휘론적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sup>37</sup>

- (11) a. 많이, 멀리, 빨리  
b. 없이, 같이, 달리  
c. 집집이, 곳곳이
- (12) a. 먹-이, 놀-이, 다듬-이, 땀-이, 물-이, 미닫-이  
b. 편지꽃이, 소금구이, 칸막이  
c. 굵-이, 길-이, 넓-이, 높-이, 더위(〈땀-이〉)
- (13) a. 높다(〈높다〉), 없애다(〈없다〉),  
b. 속이다(〈속다〉), 죽이다(〈죽다〉),  
c. 잠기다(〈잠그다〉)  
d. 먹이다(〈먹다〉)
- (14) 꽃-이, 발-이, 옷-이, 밑-이

(11)의 '-이'는 형용사, 명사를 부사로 바꾸는 기능이 있고, (12)의 '-이'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기능이 있으며, (13)의 '-이'는 동사를 다른 기능을 갖는 동사로 바꾸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14)의 '-이'는 통사적 기능만을 갖는다. (11)-(13)에서의 접미사 '-이'는 (14)와는 다른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11)-(13)에서의 '-이'는 파생접미사로, (14)의 '-이'는 굴절접미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파생접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통사범주를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13)의 '-이'는 파생접사와 굴절접사를 구분하는데 문제가 된다. '먹이다, 속이다'와 같은 동사들은 동사 '먹다', '속다'에서 각각 도출된 것들로, 접사 '-이-'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11)-(14)에서의 '-이'는 (15)에서의 '이'와는 다른 음운론적 공통점을 갖는다.

- (15) 꽃잎, 발이름, 꽃이름, 나날이, 옆옆이

(11)-(14)의 단어에서는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가 일어나지만([[m<sup>ə</sup>k]v[i]N]<sub>N</sub> → [m<sup>ə</sup>·gi]N; [[os]N[i]]<sub>N</sub> → [o·si]N), (15)의 단어들에서는 어간말 위치에서 중화([[k'oe]N[ilɔ]N] → [[k'od]N[ilɔ]N])가 일어난다. 둘

14 김 수 끈

예, (11)-(14)의 단어에는 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되지만([[mitat]<sub>v</sub>[i]<sub>N</sub>]<sub>N</sub> → [mi·ta·ci]<sub>N</sub>; [[mit]<sub>N</sub>[i]<sub>N</sub>] → [mi·ɛi]<sub>N</sub>), (15)의 단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k'œ]<sub>N</sub>[ilɪm]<sub>N</sub>] → [k'od]<sub>N</sub>[nip]<sub>N</sub>), 세째, (15)의 단어에서는 [n]삽입이 일어나지만([[k'œ]<sub>N</sub>[ip]<sub>N</sub>]<sub>N</sub> → [[k'od]<sub>N</sub>[nip]<sub>N</sub>]<sub>N</sub>), (11)-(14)의 단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38</sup> 이같은 관찰은 파생과 굴절을 합성과 구분하여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sup>39</sup>

Lieber(1980, 1983)는 접사를 하위범주화하면 파생, 복합어 형성을 통합할 수 있으므로 굴절을 파생, 합성과 구분되는 어구조 규칙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가지치기(branching)가 이분법(binary)이라는 것과 자질삼투규약들(Feature Percolation Conventions)이 순서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어형성과정을 다룬다.<sup>40</sup> Lieber의 이론에 의하면 국어의 파생접미사 '-이'는 (16)과 같은 어휘 내항(lexical entry)을 갖고 동사 '먹-'은 (17)과 같은 논항구조를 갖는다.<sup>41</sup>

(16) 이: N, [+ V \_\_\_\_\_]

(17) 먹:(Agent, Theme)



형태소 '먹-'과 '-이'는 범주표지가 붙지 않은 이분지 가지( unlabeled binary branching tree)에 삽입되고 하위범주화 제약(subcategorization restrictions)의 적용을 받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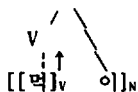
(18) a.    ∧

      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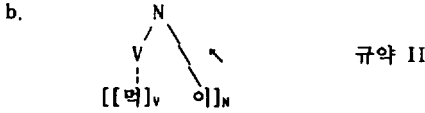
          [먹]<sub>v</sub> [이]<sub>N</sub>

자질삼투규약(Feature Percolation Convention)에 의해 가지에 범주표지가 붙는다.<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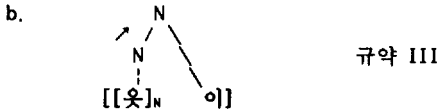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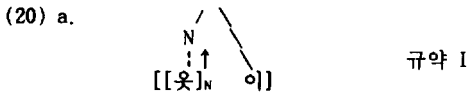
(19) a.



규약 I



Lieber이론에서 굴절어 '옷이'에 대한 도출과정은 (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김영석 외(1992)는 Lieber이론의 문제점이 굴절과 파생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sup>43</sup> 김영석 외(1992:84)는 Lieber이론을 수정하여 파생과 굴절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Lieber의 규약 I을 약간 수정하여 파생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앞서 수정한 규약 I이 파생에만 적용되어 굴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굴절은 규약 II(본래의 규약 III)에 의해 구조를 갖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김영석 외(1992)에 의하면, '먹이'와 '옷이'는 (21a)와 (21b)와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 4.3. 어휘적 변형과 X' 형태론

Roeper and Siegel(1978)은 형태론적 측면과 의미론적 측면에서 어근 복합어(root compound)와 동사적 복합어(verbal compound)를 구별하였다.<sup>44</sup> 동사적 복합어는 어근복합어와 달리 어휘적 변형에 의해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사적 복합어와 통사구조가 유사하다는 관찰에 근거한다.<sup>45</sup> Roeper and Siegel(1978:208)은 동사적 복합어 도출을 위한 첫째자매원리(First Sister Principle)

## 16 김 수 곤

(22) 모든 동사적 복합어는 동사의 첫째 자매 위치에 있는 단어의 결합으로 형성된다.

물 제안했는데, 이 원리에 의하면 동사적 복합어 'truckdriver'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도출 될 것이다. 어휘부에서 동사 'drive'는 drive, \_\_\_[N]이라는 하위범주화 틀을 갖는다. 다음에 접사 규칙 [drive] W  $\Rightarrow$  [[empty]+drive+er]<sub>N</sub> W에 의해 drive의 어휘항목에 [[empty] drive+er]<sub>N</sub> [N]을 준다. 복합어 형성 규칙 (23)에 의해,

$$(23) \text{ [[empty] + drive + er] }_N \text{ [truck] }_N \Rightarrow \text{ [[truck] }_N \text{ + drive + er] }_N$$

동사뒤의 명사 'truck'을 동사앞 빈 자리에 이동시켜 'truck driver'를 생성한다.

Roeper and Siegel의 원리를 국어의 동사적 복합어 '새먹이'의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동사 '먹-'은 '먹, \_\_\_[N]'이라는 하위범주화 틀을 갖고, 접사 규칙 [먹] W  $\Rightarrow$  [[empty]+먹+이]<sub>N</sub> W에 의해 '먹'의 어휘항목에 [[empty]+먹+이]<sub>N</sub> [N]를 준다. 그 다음 복합어 형성 규칙 '[[empty]+먹+이]<sub>N</sub> [새]<sub>N</sub>  $\Rightarrow$  [[새]<sub>N</sub>+먹+이]<sub>N</sub>'에 의해 복합어 '새먹이'가 생성된다. 그러나 국어의 동사적 복합어 '새먹이'를 영어의 동사적 복합어 'truck driver'를 비교해 보면, 국어의 동사적 복합어 '새먹이'와 영어의 동사적 복합어 'truck driver'는 [[N] [[V][af]]]라는 동일한 복합어 구조를 갖지만 이에 대응하는 통사구조는 다르다. 만일 '새먹이'에 대응하는 통사구조가 '새가 모이를 먹다'라고 한다면, 동사 '먹-'에 대한 첫째 자매는 '모이'가 되므로 통사적 복합어 '새먹이'의 도출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만일 '새먹이'에 대응하는 통사구조가 '새가 먹다'라고 한다면, 영어의 'truck driver'와는 달리 국어의 동사적 복합어 '새먹이'는 '주어-술어'의 관계에 있다.

Allen(1978)은 Roeper and Siegel의 관찰은 많은 경우 타당하지만, '모든 동사적 복합어가 동사의 첫번째 자매 위치에 있는 단어와 결합으로 형성된다'는 첫째자매원리(First Sister Principle)는 어형성을 위한 원칙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고 이 원칙을 의미해석을 위한 여과장치(filter)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Allen(1978)의 제안에 따르면, 영어의 동사적 복합어 'truck driver'는 의미해석 필터 I(Interpretive Filter I)에 의해 국어의 동사적 복합어 '새먹이'는 의미해석 필터 II(Interpretive Filter II)에 의해 의미해석이 이루어질 것이다.<sup>46</sup> 그러나 '새먹이'는 '새가 먹다'의 의미가 아니고 '새를 위한 먹이'를 의미하므로 '새먹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어휘적 변형에 의한 기술방법은 타당하지 않다.

Lieber(1980, 1983)는 어휘부내의 모든 특이한 정보는 모두 어휘항목에 있어서, 특이자질을 갖는 형태소는 하위범주화에서는 제약울 받지만 실제 단어로 결합하는 원리에는 예외가 없다는 가정 위에서 굴절과 파생울 모두 어휘부안에서 같은 종류의 어형식과정으로 다룰 뿐아니라 복합어형성도 동일한 원리로 다룬다.<sup>47</sup> Lieber의 이론에 의하면 어근 복합어와 동사적 복합어도 동일한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Lieber의 이론적 틀 안에서 국어의 '새그물'과 '새먹이'를 각각 어근복합어와 동사적 복합어의 예로 하여 도출하면 (24)와 (25)와 같이 된다.

- (24) a.  $\begin{array}{c} \wedge \\ [새]_N [그물]_N \end{array}$                       형태소 삽입
- b.  $\begin{array}{c} \wedge \\ N \quad N \\ \vdots \uparrow \quad \vdots \uparrow \\ [새]_N [그물]_N \end{array}$                       규약 I
- c.  $\begin{array}{c} N \\ \wedge \quad \swarrow \\ N \quad N \\ \vdots \quad \vdots \\ [새]_N [그물]_N \end{array}$                       규약 IV
- (25) a.  $\begin{array}{c} \wedge \\ [새]_N [먹이]_N \end{array}$                       형태소 삽입
- b.  $\begin{array}{c} \wedge \\ N \quad N \\ \vdots \uparrow \quad \vdots \uparrow \\ [새]_N [먹이]_N \end{array}$                       규약 I
- c.  $\begin{array}{c} N \\ \wedge \quad \swarrow \\ N \quad N \\ \vdots \quad \vdots \\ [새]_N [먹이]_N \end{array}$                       규약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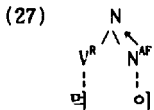
Lieber(1980, 1983)의 이론은 최소의 이론적 기제를 가지고 어휘부에 관한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Roper and Siegel의 이론보다 우수하다.<sup>48</sup> Kiparsky(1983)는 Lieber(1980)가 제안한 어휘삽입 방식이 갖는 장점을 언급했다. 첫째, 두가지 주요 어형성과정인 접사첨가와 합성을 한가지 원리에 의해 다룬다. 둘째, 자질삼투 규약은 음운론에서 [± foreign]같은 자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접사를 규칙이 아닌 어휘항목으로 다룸으로써 접사첨가에 있어 외재적인 규칙순서가 필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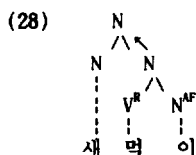
Selkirk(1982)은 강어휘론 가설에 토대를 두고 문맥자유 문법(contest-free grammar)과 X'이론에 기초한 어구조 이론을 발달시켰다.<sup>49</sup> Selkirk의 X' 형태론에 의하면 통사론과 형태론은 '단어'라고 하는 X 단계를 공유하는데, "모든 형태범주는 그것이 단어이든 단어보다 '낮은' 것이든 간에 X' 계층 안에 들어 있다(Selkirk 1982: 7)". 단일어나 복합어는 모두 같은 단계 X<sup>0</sup>로 다루어지고, 어간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X<sup>-1</sup>로, 접사는 단계를 구분함이 없이 범주 표찰과 하위범주화 틀을 지닌 어휘항목 X<sup>AF</sup>로 다룬다. 그리고 Williams(1981: 247)의 이론을 응용한 수정 우측머리규칙(revised right head rule)과 삼투(percolation) 장치에 의해 형태적으로 복잡한 단어의 내부구조를 설명한다.<sup>50</sup> Selkirk의 X' 형태론에 의하면 복합어 '새먹이'의 구조는

- (26) a.  $X \rightarrow X^R X^{AF}$   
 b.  $X \rightarrow X X$

(26a)와 (26b)에 의해 기술될 수있다.<sup>51</sup> 먼저, (26a)에 의해 '먹'과 '이'는  $N[V^R N^{AF}]N$  구조를 갖게 되고, 머리자질이 삼투되어 명사범주를 갖는다(27).



다음에 규칙 (26b)에 의해 '새'와 '먹이'는  $N[N N]N$  구조를 갖게 되고 머리자질이 삼투되어 명사범주를 갖는다(28).



Selkirk이 제안한 형태이론은 단어통어론의 성격을 갖는데, 영어의 모든 단어를 생성할 수 있는 어구조규칙과 어구조 규칙이 생성하는 연쇄에 알맞는 구조기술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이론적 장치를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elkirk이 제안한 다시쓰기 규칙은 '영어에 존재하는 결합의 일람표에 불과하여 설명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Scalise 1984: 189)' 어떤 결합이 가능하고 어떤 결합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설명할 수 없다. Selkirk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규칙적용의 순서에 관련된 것인데, Mohanan(1986)은 Selkirk(1982)의 이론을 어휘음운이론의 체계안에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sup>52</sup> Mohanan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국어의 접미파생이 제 1 층에서 적용된다고 할 때, 접미사 '-이'에 대한 어휘항목은 (29)와 같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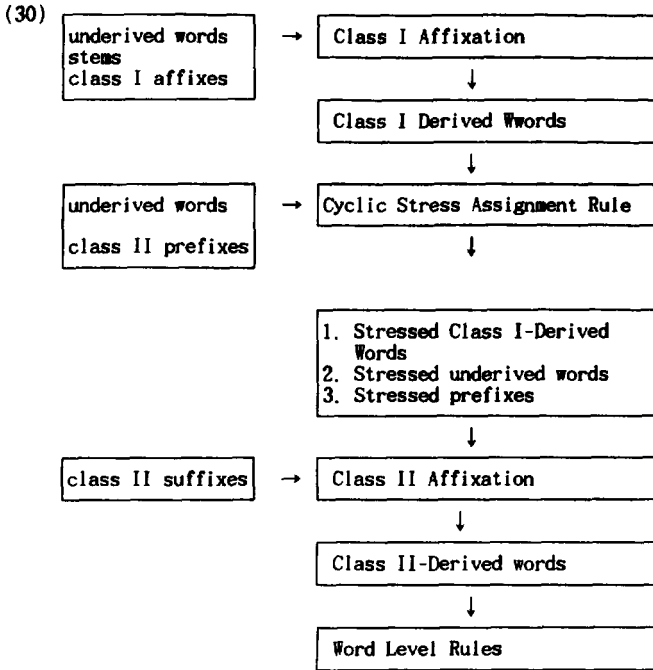
(29) [i]: N<sup>AF</sup>, [+V]\_\_\_\_\_, 계층 1

#### 4.4. 규칙순가설과 어휘부의 모형

생성형태론의 발달과 더불어 단어형성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가정해왔다. 어형성의 단계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과 어형성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눌 것이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형태통사론적인 측면과 형태음운론적인 측면의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형태통사론적인 측면에서 어형성의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은 파생어, 굴절어, 복합어의 어형성과정이 다르므로 각각의 다른 계층에서 어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부구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파생어 형성단계, 복합어형성단계, 굴절어 형성단계의 순서를 가정한다.

형태음운론적 측면에서 어형성단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은 형태적인 개념인 계층이 음운론적인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접사의 음운론적 특성에 따라 계층을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sup>53</sup> SPE에서 제안한 두 가지 유형의 접사는 '접사가 일정한 순서에 의해 첨가된다'는 Siegel의 규칙순 가설(Level Ordering Hypothesis)기초가 되었다.<sup>54</sup>

20 김 수 곤



Siegel의 모형 (30)에 의하면, 제 I군에 속하는 접사들은 제 II군에 속하는 접사들이 붙은 단어에는 붙을 수 없고 제 I군 접사들은 강세위치를 변화시키지만 제 II군 접사들은 강세중립적이다.<sup>55</sup> 어형성과정의 일정한 순서를 갖는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졌고 음운론과 상호작용한다는 Siegel의 규칙순가설은 Kiparsky(1982), Mahanan(1982) 등에 의해 수용 발전되어 어휘음운이론의 발달을 가져왔다.

Siegel(1974)은 어형성의 단계를 형태음운론적 측면에서 두 단계로 구분했지만, 그 이후 이론에서는 형태음운론적 측면과 형태통사론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Kiparsky(1982a, 1982b, 1982c)는 제 I군 접사파생과 굴절, 제 II군 접사파생과 복합어형성, 제 II군 굴절의 세 단계, Mohanan(1982)는 파생어형성, 종속복합어, 병렬복합어, 굴절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반면에 Kiparsky(1985)는 굴절과 제 I군 접사파생이 동일한 계층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제 I군 접사파생, 제 II군 접사파생과 복합어형성의 두 개의 단계로 구분한다. 그러나 (31)의 예들은 어형성규칙들이 일정한 순서로 적용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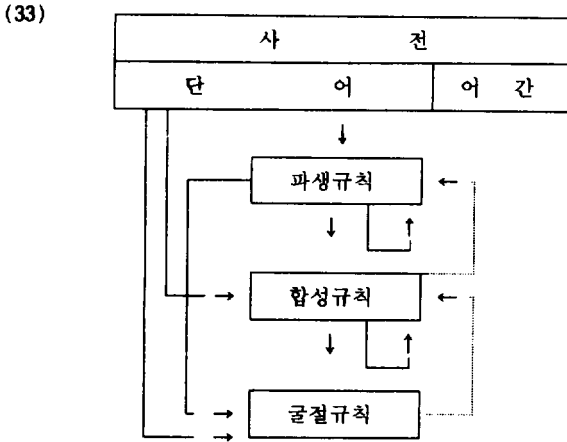


22 김 수 곤

- (32) a. [[새]<sub>N</sub> [[먹]<sub>V</sub> [이]<sub>N</sub>]<sub>N</sub> ]<sub>N</sub>  
 [[[다듬]<sub>V</sub> [이]<sub>N</sub> [물]<sub>N</sub>]<sub>N</sub> ]<sub>N</sub>
- b. [[[집]<sub>N</sub> [집]<sub>N</sub> [이]<sub>Adv</sub>]<sub>Adv</sub> ]<sub>Adv</sub>  
 [[[젓]<sub>N</sub> [먹]<sub>V</sub> [이]<sub>N</sub>]<sub>N</sub> ]<sub>N</sub>
- c. [[[[속]<sub>V</sub> [이]<sub>V</sub> ]<sub>V</sub> [ㅁ]<sub>N</sub> ]<sub>N</sub> ]<sub>N</sub> [수]<sub>N</sub>]<sub>N</sub>
- d. [[[[[쿠]<sub>N</sub> [밖]<sub>V</sub> ]<sub>V</sub> [이]<sub>N</sub>]<sub>N</sub> ]<sub>N</sub> [술]<sub>N</sub>]<sub>N</sub>

(32a)에서는 복합어형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접사 첨가가 일어나지만, (32b)에서는 복합어형성이 일어난 후에 접사 첨가가 일어난다. (32c)에서는 접사 첨가가 두 번 일어난 후 복합어형성이 이루어졌고, (32d)에서는 복합어형성후 접사가 첨가되고 다시 복합어형성이 일어났다.

(31)과 (32)의 자료를 분석 검토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Scalise(1984: 134)가 제시한 어휘부의 모델 (33)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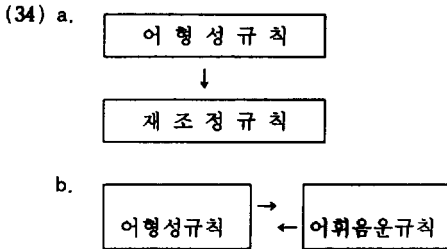


고리(loop)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규칙순가설(ordering hypothesis)가 유지될 수 없음을 내포하고, 비록 규칙순 가설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어형성의 단계를 구분할 필요는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4.5. 이형태에 대한 접근방법

생성형태론의 발달과 더불어 어휘부는 단순히 어휘목록의 저장소가 아니

라 내부구조를 갖는다고 보았는데, (34)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휘부 구조 (34a)는 ‘어형성규칙-재조정규칙(이형태규칙)’의 과정에 의해 어형성과정을 기술하는데, Aronoff(1976)에 의해 제안되어 Scalise(1984), Szpyra(1989) 등에 의해 수용 발전되었다.<sup>59</sup> 어휘부 구조 (34a)에서 재조정규칙은 어형성 규칙과는 별개의 규칙으로 음운 규칙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sup>60</sup> 첫째, 재조정규칙은 형태론적 지배를 받는 “형태”규칙으로 음운변화를 가져오지만 특정 형태소  $\alpha$  에 바로 인접한 환경에서 특정 형태소  $\beta$  에만 적용된다. 둘째, 재조정 규칙은 분석하는 언어의 기저표시(underlying representation)에 있지 않은 분절음을 도입할 수 없다. 셋째, 음운규칙에 앞서 어형성 규칙의 출력부에 적용된다.

어휘부 구조 (34b)는 ‘어형성규칙-어휘음운규칙-어형성규칙-어휘음운규칙-....’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적용에 의해 어형성과정을 기술하는데 Siegel (1974)에 의해 제안되어 Lieber (1980, 1983), Kiparsky (1982a, 1982b, 1982c, 1985), Mohanan (1982, 1986), Booij and Rubach (1984, 1987) 등에 의해 응용 발전되었다. 어휘부 구조 (34b)는 모든 이형태가 어휘목록에 수록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단어와 형태소에 관련된 형태론적 정보가 음운규칙에 들어있다고 가정한다. 어휘부 구조 (34b)는 재조정규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어휘부 구조 (34a)에서 논의되었던 재조정규칙이 갖는 특성을 음운규칙이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국어의 사동접미사 ‘-이-’는 ‘-히-’, ‘-기-’와 이형태 관계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는 비음 [n], [m] 또는 [s] 뒤에서 선택되고, ‘-히-’는 [p], [t], [k], [c] 뒤에서, 그리고 ‘-이-’는 그 밖의 경우에 선택된다(김영석 외 1992: 111, 하치근 1993:117).

24 김 수 곤

- (35) a. 보이다, 높다, 쌓이다, 꼬이다, 먹이다  
 b. 업히다, 잣히다, 닫히다, 굽히다, 뽑히다  
 c. 감기다, 굽기다, 꿰기다, 빗기다, 말기다

어휘부 구조 (34a)에 의해 국어의 사동접미사 '-이-'의 이형태에 대한 기술을 한다면, '-이-'를 기본형으로 하고, (36)과 같은 이형태 규칙을 가 정할 수 있다.

- (36) a.  $i \rightarrow ki / \begin{Bmatrix} n \\ m \\ s \end{Bmatrix} + \text{_____}$   
 b.  $i \rightarrow hi / \begin{Bmatrix} p \\ t \\ k \\ c \end{Bmatrix} + \text{_____}$

그러나 (35)의 '먹이다, 말기다'는 규칙 (36)에 대한 예외가 되므로 '먹이 다'에는 [-rule 36b]과 같은 자질을 표시하여 규칙 (36b)의 적용을 차단하 고 '말기다'에는 [+rule 36a]을 표시하여 규칙 (36b)이 아닌 규칙 (36a)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형태를 규칙으로 묶는다면, (37)에서 처럼 '-이-'와 '-히-'가 공존하는 것을 다룰 수 없다.

- (37) a. 삭이다    삭히다  
           눅이다    눅히다  
           씩이다    씹히다  
 b. 먹이다    먹히다  
           박이다    박히다

(37a)에서 '-이-'와 '-히-'는 의미를 구별하지 않지만, (37b)에서 '-이-'와 '-히-'는 다른 기능을 갖는다.

어휘부 구조 (34b)에 의해 국어의 사동접미사 '-이-'의 이형태에 대한 기술을 한다면, '-이-'의 이형태 '-히-'와 '-기-'는 독립된 개별형태소로 다루어져 모두 어휘항목에 수록되므로 어휘부 구조 (34a)에서와 같은 문제 점은 일어나지 않는다.<sup>61</sup> 어휘부 구조 (34b)는 자료 (5)에 대한 분석을 하나 의 음운규칙으로 다룸으로써 구조문법의 형태론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어형성단계가 '제 1단계: 구속형(bound form)의 결합-제 2단계: 자유형(free form)의 결합'의 순서로 이루어졌다고 '굳이, 끈이, ..., 옷이, 맛이, ...'는 제 1단계에서 형성되는데, 어휘음운



규칙은 기저표시에 없는 분절음을 도입할 수 없다는 기본가정에 의해 ‘굳이, 말이, 곧이,....’에만 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웃이, 맞이,....’에 대해서는 어휘부 밖에서 음운규칙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음운규칙이 적용영역을 달리하면서 적용됨으로써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워진 음운현상과 순수 음운현상을 구분할 수 있다. 형태론을 인정하지 않았던 생성문법의 초기이론보다 설명적 타당성을 충족시킨다.

## 5. 결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형태론에 대한 연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2장에서는 생성문법 이전의 형태론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고 3장에서는 생성문법 이후의 형태론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는데, 형태론에 대한 연구 내용을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통문법에서는 단어를 단위로 한 품사분류나 굴절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구조문법에서는 단어를 형태소라는 하위 단위로 분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단어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성문법의 초기에는 형태론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기술은 통사론과 음운론에서 다루었는데, 단어 구조 분석이나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기술이 변형론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생성문법에서는 형태론에 관한 기술은 통사 변형론적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휘론적 접근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어 통사론과 음운론에서 독립된 생성형태론의 발달을 가져왔다. 제 4장에서는 생성형태론에서의 연구 내용을 형태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고, 언어를 기술하기에 적절한 형태론의 모형이 언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을 정립하기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생성형태론은, 형태론에 대한 사적연구를 통하여 볼 때, 단어의 구조 분석과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율적인가’ 하는 문재와 문법의 다른 부문과의 경계에 대한 문재는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 내 용 주

- 1 김봉주 (1984), 김영석 외(1992), Matthews(1991), Spencer(1991) 참조.
- 2 이길록 1978: 71-98, Spencer 1992: 41-46 참조
- 3 전통문법의 방법론에 의한 국어 형태론 연구에 대한 논의는 이길록 (1978), 고영근 외 (1992), 하치근(1993) 참조.
- 4 구조문법에서 어휘부는 형태소의 목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형태론과는 별도의 것이다. Bloomfield(1933)는 어휘목록(lexicon)을 "한 언어내의 모든 형태소를 집합해 놓은 것(the total stock of morphemes in a language:162)", "문법의 부록으로서 기본적인 불규칙한 것들의 목록"(an appendix of the grammar, a list of basic irregularities: 274)으로 정의한다.
- 5 어기(base)는 단어, 어간, 어근을 총칭하는 용어로 단어형성의 바탕을 이루는 의미 중심부로 정의한다. 어간(stem)은 굴절접사(활용어미)가 연결될 수 있는 형태소나 단어로 정의하며, 어근(root)은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되지 않는 단어의 중심부로 정의한다(이화승 1955, Bauer 1983: 20-22, Hockett 1966, 이익섭 1968, 1969, 1975, 정원수 1992: 19 참조)
- 6 구조문법에서 체언토(조사)는 독립성이 없고 굴절(체언의 변화)로 보아서 단어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품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김민수 1960: 149 참조; 구조문법에서 품사분류에 대한 논의는 이길록 1978: 82-83 참조).
- 7 1930년대에는 음운론 연구에 중점을 두었는데, 특히 유럽의 프라그학과는 형태론적 현상에 있어서 음운의 기능에 관한 연구로 형태음운론의 발달을 가져와, 1940-50년대 초반은 음운론과 형태론의 병행시대라고 할 수 있다. 형태론과 음운론의 관계는 논쟁이 있어서 구조주의 방법은 미국구조주의와 프라그 학파로 구분되는데, 미국구조주의는 층위들간의 엄격한 독립성을 강조하여 형태론과 음운론 중간에 형태음소층이라는 추상적층위를 설정한 반면에 프라그 학파는 층위들 간의 상관 관계를 강조하여 형태음소층위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 구조주의형태론에서는 형태론의 개념을 약간 바꾸어, 음소적 형태와 형태소의 배열을 취급하는 형태소론(morphemics)을 미시언어의 일부로 다루어 형태론과 혼용하여 쓰는데, 이때 형태소론은 음소론(phonemics)과 대조된다.
- 8 구조문법의 방법론에 의한 분석은 하나의 동일한 음운과정을 이형태 규칙과 오픈 규칙으로 두번 기술함으로써 이원화 시킨다는 점에서 Chomsky(1957), Halle(1958)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Halle(1958)는 이같은 문제가 음소층위를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해결방법으로 음소층위를 인정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 9 구조언어학의 언어분석은 언어의 음소-형태소-통사법이라는 계열을 포착하고 최소단위인 음소(phoneme)에서 출발하여 음소의 결합체인 형태소(morpheme)에 이르는 다음 마지막으로 형태소의 기호열(string)에 따라 완성된 문(sentence)에 도달하는 순서를 밟는다. 그리하여 이들 세 가지 언어형태의 연구를 각각 음운론, 형태소론, 통사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통사론과 형태론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통사론도 형태음소론(morphophonemics) 및 형태소론(morphemics)과 함께 넓은 의미의 형태론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반면에 형태소론과 형태소론에 의해 분석·정리된 형태소 등은 단어가 어떻게 결합하여 어떠한 특성의 문법단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통사에 통사론의 과제이기도하다.
- 10 구조문법의 방법론이 국어학의 형태론 연구에 도입된 것은 1950년대 후반기이지만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국어분석에 시도된 것은 1960년대 전반기라고 할 수 있다. 구조문법에서 국어형태론 연구 개요는 이길록 1978: 18-19, 고영근외 1992: 108-113, 하치근 1993: 25-26 참조.
- 11 IA, IP, WP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pencer 1991: 49, 김영석 외 1992: 49-50 참조.
- 12 형식소(formativ)는 생성문법 초기 변형문법 이론에서 최소의 통사적 기능단위로서 사전(dictionary)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의된다. 형식소(formativ)는 어휘형식소(lexical formatives)와 문법형식소(grammatical formatives)로 구분되는데, 모든 형태들은 형식소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형식소가 형태일 수는 없다.
- 13 Chomsky(1965)는, Chomsky(1957)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휘목록을 바꿔 쓰기 규칙으로부터 분리하여, 어휘부는 범주부문과 더불어 통사부문의 기저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어휘목록과 임의규칙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수정하였다. 그러나 어휘목록 안에 존재하는 항목은 단어들(simple word) 뿐이며 파생어나 합성어 같은 복합어(complex word)들은 Lees(1960)에서 처럼 변형규칙에 의해 형성된다.
- 14 SPE의 견해는 구조주의의 견해와는 대조적이다. 구조주의 이론에서는 음소들이 모여 형태소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형태부의 하위부문인 형태음소론에서 이형태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졌다.

15 Lees(1960)는 합성어의 두 핵소 사이에 내포된 내부적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기저 문장으로부터 변형에 의해 합성어를 생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 따르면 girlfriend는 [#(the friend)<sub>NP</sub>[pres]<sub>MAX</sub>[be(a man)<sub>NP</sub>]#]<sub>S</sub> 와 같은 구조를 가질 것이다. townhouse에서 town과 house의 관계는 Lees에 따르면 The house is in the town에서의 관계와 같다.

16 국어 형태론에 대한 변형론적 방법의 적용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는데, 국어의 제안에 대한 변형분석적 연구로 이맹성(1968) 등이 있다. 그러나 국어학 연구에 도입된 방법론을 시대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어렵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걸쳐 도입된 구조문법의 방법론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도 전에 1960년대 후반에 변형문법의 방법론이 도입됨으로써 국어학 연구는 전통문법을 고수하는 입장과, 구조문법의 방법론을 도입한 입장, 그리고 변형문법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입장이 병행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길복 1978 참조).

17 Jackendoff(1975:646)는 어형성 과정을 변형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것은 '절대예외의(absolute exception: Lakoff, 1970: 52ff)'와 같은 매우 강력한 장치를 요태르도 설명적 타당성이라는 수준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Lees(1960)의 어형성에 대한 변형론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은 allen(1978), Scalise(1984) 참조.

18 이승재 1992 참조.

19 Chomsky(1970)에 의하면 변형이란 언어형태 사이의 생산적이고 규칙적인 관계를 포착하여야 하며 너무 불규칙적이라 예측 불가능한 특이한 정보는 변형으로 도출할 수 없으므로 어휘부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파생명사류와 동명사류의 차이점을 들어 파생명사류는 동명사류와는 달리 어휘부에서 비변형적인 방법(nontransformational approach)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msky는 기저부보다 풍부한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변형부의 과도한 힘을 제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형태적인 면에서 대부분 파생명사들은 이에 상응하는 동사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점(예를 들어, 파생명사 gift는 동사 give에서 도출된다)에 대해 어휘부에 관한 이론을 수립하여 그 안에서 어휘어규칙(즉 형태규칙)에 의해 그 관련성을 포착할 것을 제안했고, 동명사와 파생명사가 통사적으로 유사하다는 점(John's giving a book과 John's gift of a book에서 소유격 John's는 John gave a book의 주어에 해당한다)은 구 구조규칙의 수적으로 다루었다.

20 Chomsky(1970)의 어휘론적 가설(lexicalist hypothesis)은 Jackendoff(1972)의 확대 어휘론 가설(extended lexicalist hypothesis: 변형은 어휘적 예외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전적으로 규칙적인 과정에만 적용된다), Lapointe(1980:3)의 일반어휘론 가설(Generalized Lexicalist Hypothesis: 형태론적 조작에 통사적 변형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로 발전했고, Hoekstra et al.(1980)은 Chomsky(1970)의 방법론은 파생어 형성, 전반적인 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파생어를 형태부(lexical component)라는 별개의 모듈에서 도출하지'는 주장을 하여 모듈가설(modular hypothesis)의 기초가 되었다.

21 Halle(1973)의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 Formation'은 생성형태론의 체계적인 이론이라기 보다는 프로그램적 기술의 성격을 띤다.

22 Halle이론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Scalise(1984: 43-45), 김영석 외(1992: 62) 참조.

23 Aronoff(1976)의 이론은 어휘론 가설에 입각한 최초의 체계적인 형태론으로 음운론과 통사론에서 독립된 형태론의 발달을 가져왔다.

24 어떤 형태소의 경우 비록 그것들이 나타나는 특정한 단어를 떠나서는 독립한 뜻을 갖지 못하면서 단어보다 낮은 수준의 언어학적 단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형태소-berry와 결합하는 cran, boysen, huckle등은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고, 영어의 다른요소와 결합을 안하며; straw, black, blue, goose등은 독립해서 쓸 수 있지만, 독립해서 쓸 때와 -berry와 결합해서 쓸 때는 의미가 다르고, 일정한 뜻이 없는 형태소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Aronoff는 '형태소가 언어에서 뜻을 갖는 최소의 요소'라는 가정은 유지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많은 경우 이 최소기호의 역할은 한 단계 위인, 단어의 레벨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Aronoff 1976: 14).

25 Aronoff(1976:12)는 mit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형태소가 의미와는 관계없이 단순적으로만 규정된 요소라고 주장하는데, 형태소의 정의를 의미를 가지지 않은 단순한 음연속체라고 보는 것이 구조주의에서의 견해와 다르다. 그러나 [+lat]의 특성을 공유하는 mit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어간과 결합하고(X=mit: remit, demit, commit, transmit, submit, admit, permit...), +ion, +ory, +or, +ive, +able등에 대해 같은 변이형을 갖는다(permission, remissive, remission, remissive, remissory...)는 점에서 단순히 [mit]라는 음연속체라고 볼 수 없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다루기 위해 형태론의 단계(level)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ronoff에 따르면, 형태론의 단계에서 mit는 하나의 형태소이며 위에서 언급한 변이형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26 Aronoff의 재조정 규칙은 어휘형태규칙으로 특정한 형태소에 한정되고, 특정한 형태소의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이다(Aronoff, 1976: 87). 구조주의이론에서의 "형태음소 규칙(morphophonemic rule)"이라고 불리는 규칙과 비슷한 성격으로, 절단규칙(Truncation Rule(TR))과 이형태규칙(Allomorphy Rule(AR))으로 구분된다. Aronoff 이론은 단어어기형태론을 유지하고, 어형성 규칙이 일정한 모양의 접사 하나만을 첨가한다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조정규칙이 필요하다. 절단규칙(truncation rule: 형태소 삭제 규칙)은 단어어기형태론에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nomin+At]<sub>v+ee</sub>]<sub>n</sub>에서 +At를 삭제하는 규칙을 가리킨다. 이형태 규칙(allomorphy rule)은 변이형에 대한 규칙으로, 예를 들어, +Ation은 지정된 라틴어 어근에 붙지만, 끝자음이 설정음([+coronal])인가 아닌가에 따라 +ion, +tion이 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27 Scalise (1984: 89) 참조.

28 Scalise (1984), 김영석 외(1992: 68-75) 참조.

29 생성형태론의 방법론에 의한 국어형태론 연구 개요는 이경우(1990), 하치근(1993) 참조.

30 Kiparsky(1982C)는 접사를 어휘항목으로 다룰 경우 두 가지 장점을 언급하였다. 첫째, 파생 복합어 형성 과정을 통합할 수 있다. 둘째, 접사 첨가 순서는 외계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규칙에 의한 경우 접사 수 만큼의 접사 첨가 규칙이 필요하게 되지만 접사 첨가가 하위범주들로 결정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접사를 어휘항목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첫째, 접사는 본질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단지 어휘적 의미에 관례해서 단어의 기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둘째, 영접사(zeroaffix)는 있어도 영어휘항목(zerolexical item)은 없다. 셋째, 접사 자체는 파생과정(derivation)을 겪지 않는다. 넷째, 어휘항목만이 품사(어휘) 범주에 속한다. 다섯째, 辭彙(lexeme)는 개방류(open class)에 속하지만, 접사나 문법적 형태소는 폐쇄류(closed class item)에 속한다.

Beard(1988)는 접사를 어휘항목(lexical entries)으로 다룰 경우 영파생(zero-morphology)의 설명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31 이테리어는 형태소와 단어가 대개의 경우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소어기가설이 이테리어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지만(Scalise 1984: 80-82), 영어는 단어굴절, 단어파생, 단어합성의 성격을 갖지만 대부분 단어가 형태소와 일치하므로 영어를 분석하는데 형태소어기가설도 적절하다. 그리고 국어는 체언은 단어굴절, 단어파생, 단어합성의 성격을 지니나, 용언은 어간굴절, 어간파생, 어간 합성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단어어기가설에 의한 국어분석의 문제점은 김영석 외 1992: 68-75 참조), 독일어는 굴절이 의무적이라는 점(Bloomfield 1933: 224ff)을 고려해 볼 때, 형태소어기가설과 단어어기가설 중 어느 한 쪽이 언어보편적으로 타당한 가설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형태소 어기가설과 단어어기가설은 주어진 언어에 따라 타당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32 (1b)에서 접미사 '-이'로 끝나는 단어가 없는 것은 '-이' 접미사가 정도가 큰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만 붙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하치근 1993: 33 참조).

33 (1b)에서 접미사 '-이' 첨가 규칙이 적용된 단어가 생성될 수 없는 것은 국어에 접미사 '-음'과 '-이'는 이형태로서 '-음' 첨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김영석 외 1992: 111, 하치근 1993: 35 참조).

34 Aronoff(1976), Scalise(1984)와 같이 접사가 어형성 규칙에 의해 도입된다고 보는 입장은 단어 '길이'에 대해 [[길]<sub>v</sub>+이]<sub>n</sub>와 같은 괄호 매김을 갖고, Siegel(1974)과 같이 접사를 어휘목록안의 형식소(formativ)로 다루는 입장은 [[길]<sub>v</sub>+이]<sub>n</sub>와 같은 괄호매김을 갖는다. 접사에 범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Selkirk 1982: 68 참조.

35 Selkirk(1982: 73)은 굴절은 파생이나 합성과는 구별되는 어구조 규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굴절범주와 관련된 자질들을 (a)에서와 같이 하나의 접사로 보느냐 아니냐 (b)에서와 같이 각각 다른 접사에 혹은 기타의 결합으로 나타낼 것인가에 따라 규칙의 모양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a. N → N  $\left[ \begin{array}{l} \text{Af} \\ \text{case} \\ \text{plur} \\ \text{gend} \end{array} \right]$
- b. N → N  $\left[ \begin{array}{l} \text{Af} \\ \text{plur} \\ \text{gend} \end{array} \right] \left[ \text{ Af case} \right]$

김영석 외(1992)는 이 같은 규칙체계가 굴절접사의 배열 내지 분포관계에 관한 일반성을 곧바로 포착하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36 파생과 굴절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는 Scalise 1984: 131-148, 김봉주 1984: 85-112, 하치근 1993: 118-1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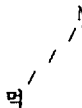
37 굴절접미사가 갖는 의미의 추상성 및 어의의 다의성에 대한 논의는 김봉주 1984: 111-112 참조.

38 이밖에 합성어에만 적용되는 음운규칙으로는 'ㄹ' 탈락(나날이<날+날+이>, 사이시옷첨가(가<내+가>)가 있다(김영석 외, 1992: 167-17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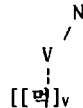
39 Kiparsky(1985)도 "굴절접사와 파생접사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음운론적인 차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굴절과 파생을 단일한 원리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40 Lieber의 Feature Percolation Convention은 파생, 굴절, 복합어가 통사적 범주를 갖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Williams(1980)의 RHR(Righthand head rule)과 Percolation으로 설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Lieber는 굴절접사는 비록 머리는 못되어도 그 구성 자질이 머리(Head)로 삼투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Lieber(1980, 1983)와 William(1981)의 차이점은 Williams(1981)의 tree에서는 stem에 category가 주어지지 않으나(i), Lieber(1980, 1983)의 tree는 stem에 category가 주어진다(ii)는 점이다.

(i)



(ii)



41 Lieber(1980)의 어휘구조이론(the theory of lexical structure)에 따르면, 어간과 접사를 포함하는 형태소는 범주, 하위범주, 의미표시,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 특이자질의 정보를 담은 어휘항목(lexical entries)을 갖는다(Lieber(1983: 252각주참조)). 동사의 논항구조는 의미역할 들 Agent, Theme, Goal 등의 배열로 표시되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느것이 문장의 주어로 작용하는지를 external로 표시해준다. Williams(1980)는 이것을 external argument라고 한다.

접사에 대한 하위범주화 틀은 통사론적 정보와 이에 관련된 형태론적 정보가 있을 것이고, 이밖에 음운론적 정보와 의미론적 정보가 수반되는데, X<sup>n</sup>는 접사도 하위범주화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에 대한 어휘항목은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1)에서

(1) [i]: N<sup>n</sup>, [+V]\_\_\_\_\_

N<sup>n</sup>는 형태소 '-이'가 명사를 만드는 접사라는 정보를 담고 있고, [+V]\_\_\_\_\_ 는 이 접사가 동사뒤에 붙는 접미사임을 의미한다.

42 Lieber에 의하면 규약 I-III은 언어보편적(language universal)이지만, 모든 언어가 우측머리규칙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규약 IV는 언어특정적(language specific)하다고 본다. 그리고 Lieber는 복합어에 관한 규약 IV에서 'stem'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점이, William의 견해와 다르다(William은 복합어에는 word를 쓴다).

43 김영석 외(1992)는 Lieber이론의 "어떤 어형성 과정도 그 자체의 출력부에 적용될 수 없다"는 다중적용 제약(multiple application constraint: Lieber 1980: 269)과 어형성 과정에서의 국부성 제약을 문제점으로 다루었다. 이에 관련된 논의에서 김영석 외(1992: 81)는 굴절과 파생의 차이점을 강조하였다. Strauss(1982b)도 Lieber이론이 '굴절이 파생과 구별되는 형식상의 특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44 어근복합어와 동사적 복합어의 차이점(Roeper and Siegel 1978)

	어근 복합어	동사적 복합어
형태론적 차이	1. 많은 통사범주어들을 결합하여 만들 수 있다. 예: crystal-clear(A+A) deep-fry(A+V) air-condition(N+V)	1. -er, -ing, -ed의 형태를 갖는다. 2. 주요부에 반드시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부가 동사 파생어이다. 예: oven-cleaner strange-sounding expert-tested
의미론적 차이	1. 뜻이 예측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2. 뜻과 관계없이 결합이 가능하다.	1. 뜻이 합성적이어서 예측가능하다. 2. 결합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구분을 할 수 있다.

45 Roeper and Siegel(1978)은 동사적 복합어와 통사구조는 모두 동일한 하위범주화 틀을 갖고, 동사적 복합어구조의 적절성은 이에 대응하는 통사구조의 문법성과 관련있다고 본다. peace-making가 적절한 구조인 것은 She makes peace.가 문법적이기 때문이고, \* peace-making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She thinks peace이 비문법적이기 때문이다.  
46 (1) Interpretive Filter I(Allen 1978, (171))  
If the deverbal derivative is subcategorized for an optional or obligatory direct object, then the first(left) constituent of the compound is interpreted as such.

(2) Interpretive Filter II(Allen 1978, (174))  
It the deverbal derivative takes no direct object, then the first(left) nominal constituent of the compound is interpreted as 'subject'.  
47 전상범(1988)도 어근복합어와 동사복합어형성의 규칙을 구분할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복합명사를 위한 복합어 규칙(Compound Noun Formation Rule 전상범 1988: 344)을 제안하였다.

48 Lieber(1983)는 Lieber(1980)의 모델이 갖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합어의 과잉생성을 막기 위한 형식적기제(formal devices)로서 필터(a seires of filters)를 사용하는 대신 어휘항목이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를 갖도록 제안하였다. Lieber는 Roeper and Siegel(RS)의 이론과 비교하여 RS 이론에서의 하위범주화틀은 Lieber이론의 논항구조와 동일 개념이다(Lieber 1983: 282)고 주장하고, 자신의 이론이 보다 우수한 이유를 열거했다(Lieber 1983: 283). 첫째, 간결성의 측면에서 RS 분석은 Lieber보다도 많은 이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둘째, RS 분석은 어휘적 변형(lexical transformation)을 요구하므로 훨씬 더 강력하다.

49 Selkirk에 의한 형태부는  $X^n \rightarrow Y^n X^{nf}$  ( $n$ = 단어 또는 어근) 모양의 어구조 규칙(word structure rules), 어휘항목의 목록으로 자유형(free form)과 접사, 어간, 어근과 같은 구속형(bound form)을 포함하는 확대 사전(extended dictionary)과 어휘적으로 명시된 조건(하위범주)에 맞추어 사전의 어휘항목을 삽입함으로써 다시쓰기 규칙에 의해 생성된 구조를 완성하는 (형태) 어휘 삽입 변형(morpho-lexical insertion transform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Selkirk은 어구조 규칙이 주어진 언어의 모든 단어를 생성하도록 고안된 문맥자유 다시쓰기 규칙체계를 가리키는데, 모국어 사용자의 직관을 나타내고, 형태구조의 반복성 및 자기 내포를 고려함으로써 단어 길이에 원칙적 상한이 없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Selkirk 1982: 3).

50 Williams(1981a: 248)는 복합어의 머리는 단어의 오른쪽 구성원이라고 단정하고 이것을 우측머리 규칙(righthand head rule)이라 한다. 그런데, Williams의 이론에 반증이 되는 예로 영어에는 범주를 바꾸는 몇 개의 접두사가 있다. 또한 합성어의 경우도 왼쪽 요소를 머리를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굴절접사는 범주를 바꾸는 일이 없다. 그래서 Selkirk(1982: 20)은 우측머리규칙의 수정안(Revised Righthand Head Rule)을 제안하였다. 어떤 단어 내부의 형태에서



X가 통사자질 복합체를 나타내고, Q가 자질 복합체 X를 가진 범주를 담고 있지 않으면,  $X^n$ 은  $X^m$ 의 머리가 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왼쪽 요소도 머리가 될 수 있다. 삼투(percolation)는 '만약 성분  $\alpha$ 가 성분  $\beta$ 의 머리이면,  $\alpha$ 와  $\beta$ 는 동일한 묶음의

(통사 및 구별)자질로 연결된다(Selkirk 1982: 21)'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일종의 적형조건(well-formedness condition)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Selkirk(1982)의 삼투에 대한 견해는 Williams(1981)의 개념을 응용한 것으로 Lieber(1980)와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Lieber의 이론에서 삼투규약은 상위의 교점에 없던 표찰을 달아주는 기능을 한다.

51 X'형태론의 접근방법을 응용한 국어의 형태론 연구는 정원수(1992)가 있다.  
 52 Mohanan은 접사의 속성과 규칙적용순서를 고려하여 접사가 첨가되는 계층을 접사의 어휘항목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어 접사 [ic]의 어휘항목은 V, [+N, -V] \_\_\_\_\_, stratum 1와 같이 된다(Mohanan 1986: 141).

53 주어진 언어의 접사의 종류를 구별하는 기준은 언어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어형성 단계를 몇개로 나누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iegel(1974)과 Allen(1978)은 접사를 "+" 접사와 "-" 접사로 구별하고 어형성순서에 대한 가설(ordering hypothesis)을 세웠다. Scalise(1984)는 이테리어에서 파생어 형성과 복합어 형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 접사와 - 접사로 구분하였다. Booij(1977)는 네델란드어에서 +와 #의 차이에 의해 강세이동 접사와 강세증립 접사를 구분하였다. 국어에서도 +와 #의 차이는 파생어형성과 복합어형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 앞서 국어자료(10-(14)에 대한 논의에서 파생어와 굴절어는 음운론적 특성을 공유하지만, 복합어는 파생어와 굴절어와는 다른 음운론적 특성을 갖는다.

54 SPE에서 이 두가지 유형의 접사는 통사론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나, 제조정 규칙에 의해 조정된 다음 음운론에 들어간다. 두가지 유형이 접사를 어형성과정에서 다르게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형태론의 발달과 더불어 가능해졌다.  
 55 영어의 접사분류(Siegel 1974, Selkirk 1982, Strauss 1982, Szpyra 1989 참조)

제 I 군 접미사	-y(명사형), -ate, -ion, -ity, -(i)fy, -al(형용사형), -ous, -ory, -ic, -ary, -use, -itude, -ial(Siegel 1974), -th, -ette, -ian, -a, -ese, -esque(Selkirk 1982), -an, -ious, -is(Strauss 1982)
제 II군 접미사	-y(형용사형), -ness, -less, -ly, -ish, -like, -some, -ful, -al(명사형), -ed, -ing(Siegel 1974), -hood, -age, -ling, -let, -dom, -worthy (Selkirk 1982), -ship, -er(Strauss 1982)
제 I 군 접두사	in-, con-, per-, ab-, sub-, dis-, trans-, inter-, para-, de-(Siegel 1974)
제 II군 접두사	anti-, pro-(Siegel 1974), non-, step-, ex-(Selkirk 1982)

56 Szpyra 1989: 38-40 참조.  
 57 Booij and Rubach(1984)는 단어를 형태론적 단어(morphological word)와 음운론적 단어(phonological word)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ungrammaticality' 문제를 'un-'이 음운적으로 다른 접사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관찰을 토대로 음운적 접근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첫째, un-을 음절 규칙 적용에 있어 독립된 영역을 가지므로 모음간 자음을 뒷 모음에 연결시켜 음절을 만드는 보편적인 규칙(Onset First Principle)을 위반한다. 둘째, un-은 보통 한 단어 내에서 적용되는 비음동화를 견지 않는다. 셋째, -ity가 가져오는 강세 변화가 un-의 존재와 무관하다. 이같은 관찰 위에서 un-을 어휘형성상으로는 별개의 어휘단위로 다루어, ungrammaticality는 형태적으로 한개의 단어이나 음운론적으로는 두개의 단어라고 분석하였다.

58 김영석 외 1992: 124-129 참조.

59 SPE이후 생성음운론에서도 제조정규칙이 다루어졌지만, 생성형태론의 제조정 규칙은 SPE와는 기능이 다르다. SPE의 조정 규칙은 어휘(형식소)표시와 음운표시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규칙으로 다음 세가지 기능을 갖는다. 첫째, 형태론적 기능으로 구성소의 통사범주를 바꾸거나 경계표시(+ 또는 #를)를 바꾸는 기능이 있다. 둘째, 음운론적 기능으로 표면통사구조를 음운론적 구조로 바꾸고 추상적 문법적 형태소(formative)에 음성적 내용을 할당하며(past→/d/) 음운 규칙을 위해 필요없는 경계를 모두 제거한다. 셋째, 형태통사론적 환경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조정규칙에 의해 receive라는 동사에서 도출한 추상명사는 \*receive+ion이 아니고 reception이 된다. SPE이론의 조정규칙을 형태 규칙(morphological rule)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SPE 이론이 독립적인 형태론을 인정하지 않았고 음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0 Scalise(1984: 83-86)는 어형성 규칙과 재조정 규칙의 분리가 갖는 장점을 언급했다. 첫째, 어형성 규칙을 일반화 하여 특정한 형태론적 관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기술을 할 수 있다. 둘째, 이형태과정을 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어형성규칙의 적용에 있어 문제가 되는 과정들에 대한 일반화를 포착할 수 있다. 넷째, 어형성 규칙이 변형력을 갖지 못하도록 문법규칙을 제약할 수 있다. 61 '-이'의 이형태들을 개별형태소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심재기 1882: 400 참조.

### 참 고 문 헌

- 고영근 (1974) 국어 접미사의 연구, 서울: 백함출판사.  
 고영근 성광수·심재기·홍중선 편 (1992) 국어학연구 백년사 [I], 서울: 일조각.  
 김계곤 (1968)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앞가지에 의한 파생법," 인천교대논문집3.  
 김계곤 (1969)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인천교대논문집 4.  
 김민주 (1960) 국어 문법론 연구, 서울: 통문관.  
 김봉주 (1984) 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김영석·이상익 (1992) 현대형태론, 서울: 학연사.  
 김창섭 (1990) "복합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178-185.  
 송철의 (1977) "파생어 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38.  
 이경우 (1990) "파생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195-204.  
 이길록 (1978) 국어문법연구, 서울: 일신사.  
 이병근 (1986) "국어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22-3.  
 이익섭 (1965) "국어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이익섭 (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단국대) 5, 155-164.  
 이희승 (1955) 국어학 개설, 민중서관.  
 전상범 (1986) "영어형태론 연구: 복합어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4-3, 331-347.  
 정원수 (1992) 국어의 단어 형성론, 서울: 한신문화사.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하치근 (1993) 국어 파생형태론, 서울: 남명문화사.  
 허 용 (1975) 우리옛말본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 Allen, M. (1978) "Morphological Investig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Anderson, S. R. (1982) "Where's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3, 571-612.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I, Cambridge, Mass.: MIT.  
 Bauer, L. (1983) *English Word Forma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ard, R. (1988) *Introducing Linguistic Morpholog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olt.
- Booij, G. E. and J. Rubach, (1984) "Postcyclic vs. Postlexical Rules in Lexical Phonology"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Also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1986) *Phonology and Morphology* 5, 189-250. Seoul: Hanshin.
- Booij, G. E. and J. Rubach, (1987) "Postcyclic versus Postlexical Rules in Lexical Phonology" *Linguistic Inquiry* 18, 1-44.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Jacobs and P. S.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184-221, Waltham, Mass.: Ginn.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 Di Sciullo, A.-M. and E. Williams (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Cambridge, Mass.: MIT.
- Halle, M. (1959) *The Sound Pattern of Russian* The Hague: Mouton.
- Halle, M. (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 formation" *Linguistic Inquiry* 4, 3-16.
- Halle, M. and K. P. Mohanan (1985) "Segmental Phonology of Moder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6, 57-116.
- Hockett, C.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 Hoekstra, T. and H. van der Hulst and M. Moortgat, eds. (1980) *Lexical Grammar*. Dordrecht: Foris.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 Jackendoff, R. (1975) "Morphological and semantic regularities in the lexicon" *Language* 51, 639-671.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New York: Norton Library.
- Kiparsky, P. (1982a) "From Cyclic Phonology to Lexical Phonology" in H. Van der Hulst and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I*, Dordrecht: Foris.
- Kiparsky, P. (1982b) "Lexical Morphology and Phonology" in I.-S. Yang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3-91.
- Kiparsky, P. (1982c) "Word Formation and the Lexicon" in F. Ingemann (ed.) *Proceedings of the 1982 Mid-America Linguistics Conference*. Lawrence, Kans.: University of Kansas. Also in The

- Linguist Society of Korea (ed.)(1984) *Phonology and Morphology* 1, Seoul: Hanshin.
- Kiparsky, P. (1985) "Some Consequences of Lexical Phonology" in *Phonology Yearbook* 2, 83-138.
- Lakoff, G. (1970) *Irregularity in Syntax*, New York: Holt.
- Lapointe, S. G. (1980) *The Theory of Grammatical Agreement*, PhD dissertation, Amherst, Mas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Lees, R. (1960)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s*, The Hague: Mouton.
- Lieber, R. (1980)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PhD Dissertation, MIT. Distributed by IULC VIII, 83-302.
- Lieber, R. (1983) "Argument Linking and Compounds in English" in *Linguistic Inquiry* 14, 251-85.
- Matthews, P. H. (1991) *Morphology*, Cambridge: CUP.
- McCarthy, J. (1979) *Formal Problems in Semitic Phonology and Morphology*, PhD. dissertation, MIT. Distributed by IULC IX, 281-528.
- Mohanan, K. P.(1982) *Lexic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Distributed by IULC VIII, 581-748.
- Mohanan, K.P. (1986) *The Theory of Lexical Phonology*, Dordrecht: Reidel.
- Mohanan, K.P. and T. Mohanan (1984) "Lexical Phonology of the Consonant system in Malayalam" *Linguistic Inquiry* 15, 575-602.
- Roeper, Th. and E. A. Muffy Siegel (1978) "A Lexic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s" *Linguistic Inquiry* 9, 199-260.
- Scalise, S. (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t: Foris. Translated in Korean by Cheon Sang-Beom (1987), Seoul: Hanshin.
- 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Mass.: MIT.
- Siegel, D. (1974) *Topics in English Morphology*, PhD dissertation, MIT. Published in 1979, New York: Garland
- Spencer, A. (1991) *Morphological Theory*, Oxford: Blackwell.
- Strauss, S. (1982) "On 'relatedness paradoxes' and related paradoxes" *Linguistic Inquiry* 13, 695-700.
- Szpyra, J. (1989) *The Phonology- Morphology Interface, cycles, levels and words*, London: Routledge.
- Williams, E. (1981) "On the Notions 'Lexically Related' and 'Head of a Word'" *Linguistic Inquiry* 12, 245-274.